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권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안락회 살인사건

세계화와 개방화



김 세곤

“
각 남도 문화유산마다 최소한 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 광주가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고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성공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법선 스님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영산강을 살린다는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는 그간에 영산강 뱃길 복원, 강 살리기 등 갖은 명분을 동원해서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중 영산강은 다른 강과 다르게 현재 정비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강을 죽이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 살리

어질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사라져갈 수많은 생명들의 아우성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영산강 지키기 광주전남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서명운동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반대운동을 나가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별의 길과 만남의 길이 그것이

욕망으로 흐르는 4대강

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별방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실상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에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다를 아니다. 이를 그대로 4대강 정비 사업이라면, 전문가의 눈을 빌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경우,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하고, 분류로 흘러들도록 하는 하천 관리를 핵심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곳곳에 댐에 준하는 보를 설치하고 강과 생태계 및 인간을 단절시키는 담을 쌓겠다는 발상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왜 하필 수심은 최소 5m가 되어야 하며, 넓이는 50m가 되어야 하는냐는 점이다. 깊이 파내고, 강을 직선화하는 이 정권의 강 살리기는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영산강과 온 국토에서 벌

다. 무엇을 이별해야 하는가? 인간만을 위한 이기적 탐욕심(貪)과 이별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順)과 이별해야 한다. 결국은 하나의 생명임을 알지 못하는 여러식음(癡)과 이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먼저, 스스로를 잘 지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기적인 탐욕심을 중생을 위한 원력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는 성내는 마음을 사랑의 열정으로, 여러식음을 지혜로 바꾸어야 한다. 궁극에는 청정무구한 본래 면목과 만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모든 자연이 하나의 생명임을 아는 것이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생명파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중지시키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의 탐진치(貪嗔癡)에서 나오는 무명(無明)의 4대강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으로 흐르는 죽음의 강(死大江)이 되고 말 것이다. <무등산 문빈정사 주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심과 사랑을

평소 회사 직원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목욕봉사를 간다. 그곳은 장애를 갖고신 노인분들이 기거하는 복지시설이다. 그런데 목욕 도중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할아버지의 등과 엉덩이에 난 종창 때문이다. 할아버지들은 평소에도 불편한 몸 때문에 맘대로 눕거나 누운 몸을 움직이시기 어렵기 때문에 종창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종창도 생긴지 꽤 됐는데 우리가 찾아보기 작전 다른 봉사팀이 다녀가 종창 부위도 많이 나왔고 목욕으로 깨끗해

지긴 하셨다면 웃으셨다. 쌀이나 음식 같은걸 미리 준비해서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 다같이 신경 쓰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걸 깨달은 하루였다. 서로 배려와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작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는 사회, 그게 우리 마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기 고

문 상 필



드라마 ‘추노’의 인기가 한창이다. 아름다운 풍광, 깊이 있는 화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맛깔스런 대사 등 기존의 드라마와는 사뭇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끄는 것은 ‘노비’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역사가 시작된 초기에는 전쟁포로나 범죄자가 노비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빛을 못 झा아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흉년이 지기라도 하면 노비의 숫자는 갑

예산을 몰아 쓰느라 복지에산은 예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처마 밑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돌아야 할 판이다. 인권론의 도시 광주는 사정이 어떨까? 지난 광주시의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든 것은 그나마 체면은 세운 수준이다. 하지만 조례는 지키라고 만든 것인데, 만들기만 할 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 저소득 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노인, 보건

사회복지 바로 선 광주

자기 늘어나게 된다. 노비가 많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민이 노비가 되는 것은 국가 재정수입에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구려 고국천왕 때 흉년이나 춘궁기에 양곡을 대어해주는 ‘진대밭’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 고려는 의창으로, 조선은 여러 구휼체도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했다. 사회복지제도가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제 세기 초반에 벌어진 경제대공황은 자본의 욕심과 심판 없는 경쟁의 결과였고 세계를 2차 대전의 참화로 물고갔다. 그래서 현대국가들은 반성과 대안의 결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복지정책으로 자본주의의 맹점인 빈부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과도한 경쟁의 심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다. 오죽했으면 군부 독재 정권마저 가식적이지만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았겠는가. 그런데 2010년 한국사회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기분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처마 밑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 마음으로 소중히 가꿔온 복지의 나무를 열매가 맺히기 전에 도가질하는 모양이다. 4대강 살집에

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조례가 있지만 건물을 세운다거나 위원회를 만드는 것 등을 빼면 일의 진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또한 이 조례들이 대부분 정부시책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광주만의 특화된 시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50년대 전쟁고아를 위한 사회사업으로 출발한 광주의 사회사업이 이제 복지자본 2세 3세들에게 대물림되면서 부의 축적 과정이 돼 버렸고, 법인 전입금이 풀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감시해야 할 관과 사회사업기관이 결합하여 사회복지를 옹호시키고 있다. 이제 광주의 사회복지지는 변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위한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야 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방만하고 파편적인 복지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광주의 특성에 맞는 복지 시책을 개발하며,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당사자주의를 위해 공공성을 띤 시민단체나 회계 전문가,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방형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할의 희망을 줘야 한다. 인권 광주의 출발은 사회복지가 바로 서는 광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 설

‘선거부정에 허위판매 까지’ 농협 왜 이러나

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안군 입자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후보자 5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곡성축협은 한우고기의 생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다 우리 농협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심할 뿐이다. 목포경찰은 25일 입자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모두 9천5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관련자 15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때문에 입자도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며 있으며 주민들이 일손마저 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곡성 축협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 쇠고기 브랜드인 ‘지

리산 순한 한우’ 인것 처럼 속여 판매했다. 선거부정에 허위판매까지 농협의 ‘모럴 해저드’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농협의 타락은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본전을 뽑기 위해 직원 채용, 사업자 선정, 예산 등을 제멋대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돈 선거가 농협 비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고질화한 조합장 돈 선거 행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농협개혁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조합장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권한이 많다 보니 선거가 흔탁해지고 당선 후에도 각종 이권 개입 등 또 다른 비리가 터지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들의 로비에 휘둘러 농협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광주관 조두순 사건’ 키운 허술한 보호관찰

20대 상습 성폭행범이 최근 한달 간 13~18세의 여학생을 무려 8명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범인은 보호관찰 대상이었음에도 광주시내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흥기를 휘두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까지 입혔더니 분노가 치민다. 조모(21)씨로 밝혀진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이 범인은 23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대로변에서 A(14)양을 흥기로 위협,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흥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국부에 상처까지 입혔다고 한다. 조씨는 지난 5일에도 산수동의 한 골목에서 B강(13)을 흥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자신의 속소에 끌고가 성폭행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날 범행은 조씨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지 열흘만에, 그것도 광주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신고를 한 직후 ‘보란듯이’ 저질렀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백주에, 시내 한복판에서 18일동안에 무려 8명의 여학생이 무차별적인 ‘성 테러’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일이다. 이 모두는 치안 공백이 빚은 결과이며 허술한 보호관찰제도 탓에 있다. 보호관찰제도도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 기회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 인력 부족이나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광주보호관찰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20여명의 보호관찰관이 무려 2천500명의 대상자를 관찰하도록 돼 있으나 애초부터 형식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無 等 鼓

하얀 플라스틱 칼라에 단정하게 채운 호크와 단추, 낱이 선 바지는 1970년대 모범생 교복의 전형이었다. 가끔은 모자를 빼착하게 쓰거나 운동화 뒷굽을 구겨 신기도 했지만 학창시절의 멋이러니 하고 선생님들은 귀엽게 봐주곤 했다. 질풍노도의 시절엔 누구나 그렇듯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일 때 교복을 입으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파릇파릇한 소년, 소녀가 장래의 꿈을 품어도 교복은 항상 옆에 걸려 있었다. 공부 잘하는 선배의 교복을 물려받고 그 옷만 입으면 왠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뿌듯함이 있었다. 이러한 교복이 1980년대 중반 일제의 잔재인 데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자율화 조치를 당한다. 이후 교복 자율화조치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졌고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다. 교복은 진화를 거듭해 다양한 디자인과 밝은 색깔로 교복패션을 만들어냈고

그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 시장이 되었다. 한때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와 폭리로 교복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당국의 각종 규제조치로 교복값이 조금은 내렸다고는 하나 1월에 평균 20만 원대로 여전히 비싸다. 해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 학부모의 최대 골치거리리는 교복 구매다. 교복 정장과 셔츠에, 바지도 한두 벌 더 사면 후딱 30만 원이 넘는다. 학부모들은 새 옷을 사주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고, ‘교복 물려 입기’ 등을 통해 한웃을 입히자니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 걱정이다.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려준 옷을 부끄러워하고 새 옷만 고집하는 세대는 낭비에 다름없다. 요즘 한창 학교와 지자체, 사회단체가 벌이는 ‘교복 물려주기’ ‘교복 나누기’운동이 보다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물려준 교복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앞장설 때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교복 물려입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 지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편 집 부 2200-672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서울 지 사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